

#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의복태도 연구 -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한국거주기간별 -

유지현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A Study on Clothing Attitude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 Focused on Gender, Socio-economic Level and Resident Period -

Ji-Hun Yu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9. 7. 3. 접수; 2009. 8. 10. 수정; 2009. 8. 14.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lothing attitude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according to gender, socio-economic level and resident perio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30th to November 25th 2008, and 26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T-test,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ith SPSS 12.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st of Chinese students were middle-class Han race and they have been staying in Korea for 3 years.
2. Fashion leadership was classified as Innovation and Opinion leading factor; conformity as Nonconformity, Identification, and Norm consciousness; pursuit benefit as Practicality, Economy, and Aesthetic.
3. The Innovation factor was highly marked in female student group, the Opinion leading factor was higher in high-class group, and the pursuit benefit fact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less than three years group and over three years group who have been in Korea.
4. We need to recommend best-design clothes for high-class Chinese female students who have been in Korea for over three years, and low-price clothes for less than 3 years.

**Key Words:** Chinese students(중국유학생), Clothes attitude(의복태도), Pursuit benefit(추구혜택), Conformity(동조성), Fashion leadership(유행선도력)

---

Corresponding author ; Ji-Hun Yu

Tel. +82-2-2287-5354, Fax. +82-2287-0071

E-mail : jyu@smu.ac.kr

## I. 서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국적 외국인인 5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33만 명 정도는 '조선족'이라 부르는 한국계 중국인이고, 나머지 17만 명이 '중국인'이다. 길가는 사람 280명 중 1명은 중국인인 셈이다. 장기체류(91일 이상 국내에 체류) 중국인의 수는 1999년에는 2만 명에 못 미쳤지만, 2007년 11만 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학생이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912명이다.<sup>1)</sup>

한국과 중국은 같은 漢字문화권에 속하며, 오랜 문화적 교류를 통해, 儒敎적 가치와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해 오면서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중국 대학생들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1979년에 시도된 '한 가정 한 자녀' 운동 정책으로 인해 '소황제'로 성장한 소비자들로, 물질적 풍요와 부모의 관심 속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경험하면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에 노출되어 외국문물에 대한 포용력이 크며, 성취욕구가 높고, 자아승상과 주체의식이 강하다.<sup>2)</sup> 그러므로 이들의 의류 소비성향도 기존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최근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각 대학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중국 유학생이 유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유학생들의 소비자 특성 등 전반적인 의복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중국 유학생 대상 마케팅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말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중국 소비자와 의복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류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한국과 중국 비교연구<sup>3)</sup>, 중국 의류 소비자 특성 고찰<sup>4)</sup>, 중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의복태도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sup>5),6)</sup>, 중국인의 의복평가 기준 및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sup>7),8),9)</sup>,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 인지도 그리고 소비성향에 따른 의복태도와 구매동기 관련 연구<sup>10),11)</sup> 등이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에 유학하

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의복태도를 성별, 사회경제적수준별 그리고 한국거주 기간별로 상세히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이 인지하는 의복태도를 요인 분석하여, 이들 요인을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그리고 한국거주기간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점차 증가하고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국 대학생의 특성 및 의복태도

중국 대학생의 대다수가 보수적이며 소비성과 경제성이 낮은 전통 보수형이었으나, 점차 진취적이며 사교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이들은 성취지향적이며 자아를 숭상하고 사회,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패션감각 또한 기성세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락적이며, 심리적 수용능력이 약하여 타인과 함께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약점도 지니고 있다.<sup>12)</sup>

유국련, 김용숙(2002)<sup>13)</sup>, 김용숙(2003)<sup>14)</sup>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대학생은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과 성적매력은 중요시 여기나 유행 선도력에서는 낮은 의복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 여대생은 개성적인 의복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활동적이고 우아한 의복 이미지 역시 선호하였다. 이들은 의복구매 시 디자인과 안락감을 가장 중시 여겼으며, 유행성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실제 구매행동에서는 경제성 및 실용성을 좀 더 중시하였다.

중국 남자 대학생 역시 의복선택기준으로 심미적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sup>15)</sup>, 성별에 따른 심미적인 의복태도엔 큰 차이가 없는 것<sup>16)</sup>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동조성은 매우 낮게 나타나, 중국인 특유의 개성적인 의복태도를 보이고 있었다.<sup>17)</sup>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신세대의 의복태도는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대생은 옷차림으로 상대방의 신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유명상표의 고가 의류를 구입하고, 의복의 개성, 품위, 유행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19)</sup>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복태도를 연구한 또 다른 결과에서, 중국대학생은 편의성을 제일 중요시하였고, 다음으로 개성표현, 의복의 디자인, 유명상표, 옷감 등의 순으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20)</sup>

## 2. 의복태도 요인

### 1) 유행선도력

유행선도력이란 유행의 확산과정에서 혁신적 유행의 채택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혁신적인 한 스타일을 수용하는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써, 혁신성과 의사선도력으로 분류된다.<sup>21),22)</sup> 이 중 유행 혁신성은 개인이 새 스타일을 수용하고, 혁신적 결정을 내리거나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Rogers와 Shoemaker(1971)<sup>23)</sup>는 혁신성의 정의를 어떤 개인이 사회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혁신을 채택하는 정도라 하였다. 혁신자들은 유행전파 초기에 새로운 상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Parnak(1968)<sup>24)</sup>은 혁신성을 유행분야에 적용시켜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을 남보다 먼저 수용하는 유행 혁신자는 자신을 위해 의복착용을 즐기며, 새로운 시도에서 얻는 흥분감을 좋아하고 외모를 의도한 대로 보이기 위해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하였다. 배정주(1989)<sup>25)</sup>는 유행선도력 개발 연구에서 유행혁신성을 설명하는 변인의 영향력이 유행 흥미도, 내재적 혁신성, 의사소통경험, 위험지각도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권순기(1990)<sup>26)</sup>의 연구에서는 유행혁신자는 비유행혁신자보다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의복을 신분상징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유행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선도력은 타인에게 혁신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sup>27)</sup> 의

사선도력에 따른 하위집단 분류를 살펴보면, Sproles(1981)<sup>28)</sup>는 유행주기에 따라 소비자를 혁신자, 의견선도자, 혁신적 커뮤니케이터, 유행의 식소비자, 추종자, 지체자, 이탈자, 붕괴자, 비유행의식소비자로 분류하였고, 이중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혁신자, 의견선도자, 혁신적커뮤니케이터, 유행의식소비자가 유행선도자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김정희(1988)<sup>29)</sup>는 유행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에 따라 각각 상, 중, 하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서로 교차시켜 유행이중선도자, 유행 혁신자, 유행의견선도자, 유행추종자, 유행지체자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유행선도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Anspach(1961)은 유행선도자는 개성 있는 의복을 선택하며<sup>30)</sup>, 유행의견선도자는 추종자보다 개성, 심미성, 과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 2) 의복동조

동조행위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sup>32)</sup>으로서, 다른 사람이나 주의의 사람들과 유사한 행동은 인정을 받게 되고 유사하지 않은 행동은 거부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동조성이란 실제 또는 가상의 인물이나 집단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자신의 행동, 의견 또는 신념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영향을 의미하는데 이는 무언의 규범으로서 우리의 소비를 지배한다.<sup>34)</sup> Deutsch와 Gerard(1955)<sup>35)</sup>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심리적 근거로 규범적 사회적 영향과 정보적 사회적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의복의 동조성이란 특정 정보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조성의 요구는 크게 규범적 영향에 의한 동조성과 정보적 영향에 의한 동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은 자기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름으로써 집단에서 승인되고 받아들여지려는 욕구이고,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은 의복을 올바르게 적절하게 입고자 준거집단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자하는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동조현상이다. 이때 소비자는 의견선도자나 전문가에

게 직접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택한다.<sup>36)</sup> 그러나 박혜선·이은영(1991)<sup>37)</sup>은 의복 동조의 개념적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동조의 유형을 규범적 의복 동조와 동일시적 의복동조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동조적인 복식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대생들은 창의성, 개성, 심미성에 낮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sup>38)</sup>, 동일시적 의복동조와 규범적 의복동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동조성이 강하고, 반동조적 의복행동과 독립적인 복식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의복자신감이 강하고, 동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9)</sup>

정보적 영향에 의한 동조성 연구 결과, 자기 자신이 타인보다 유능하다고 지각할 때는 동조성이 감소되고<sup>40)</sup>, 판단이 어려운 과제일수록 타인의 의견에 더 동조한다<sup>41)</sup>고 하였다.

Jenkins(1976)<sup>42)</sup>는 동조성이 높은 집단이 의복이나 유행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고, Katz와 Lazarsfeld(1955)<sup>43)</sup>는 유행선도자는 외모나 유행에 관심이 높다고한 것을 보면, 유행선도자는 의복동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김민자와 김정호(1983)<sup>44)</sup>는 유행선도력과 의복동조성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다고 하여 이들 관계를 재확인할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동조를 행동적인 면에서의 한 차원으로 간주한 반면, Allpor(1934)<sup>45)</sup>, Walker와 Heyns(1962)<sup>46)</sup>는 비동조를, Asch(1956)<sup>47)</sup>와 Jahoda(1959)<sup>48)</sup>는 독립을 동조의 반대극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조성은 창의성과 관련지어 볼 때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sup>49)</sup>

### 3) 의복추구혜택

혜택(benefit)이란 특정제품의 속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요구나 욕구로서, 소비자들이 제품사용과 관련하여 원하는 주관적 보상이나 기대하는 긍정적 결과를 의미한다.<sup>50)</sup>

의류학 분야의 추구혜택 연구를 살펴보면, 박혜선(1995)<sup>51)</sup>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복태도관련 변인 연구에서 실용성, 경제성, 정숙성, 심미성, 유행성, 동조성, 개성, 신분상징성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실용성이란 편리함과 관리

의 용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체적, 심리적 편안함 그리고 관리의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태도라 하였으며, 경제성이란 의복을 계획성 있게 구매하여 내구성과 착용 용도의 다양성, 경제적인 가격을 중요시하는 태도라 하였다. 그리고 심미성이란 의복착용 시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조화를 이루도록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Bickle(1994)<sup>52)</sup>의 연구에서는 의류제품에 대한 추구혜택을 자기향상, 사회적 위신, 성적매력/여성다움, 유행성, 기능성/안락감, 역할상징, 체형결점보완, 개성, 세련된 외모 등 9개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인구통계적 특성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하였다. 김미영·이은영(1991)<sup>53)</sup>은 신분상징성,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 등의 추구혜택을 제안하였고, 홍희숙·고애란(1996)<sup>54)</sup>은 젊음/유행, 브랜드 가치, 자기표현, 경제성, 품질 등과 함께 의복착용상황과 소비자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의류제품에 대한 추구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정화(1997)<sup>55)</sup>의 연구에서는 실용경제성, 자아상징성, 과시성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선물용 의류구매 시 추구혜택은 실용성, 개성, 심미성, 유행 및 과시성, 경제성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승희, 임숙자(1998)<sup>56)</sup>의 연구에서는 유행선도력을 기준으로 유행이중선도자, 유행선도자, 유행추종자, 유행지체자 집단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각 하위 집단별 의복추구혜택인 브랜드 추구요인, 개성 추구요인, 유행성 추구요인, 활동성 추구요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행이중선도자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및 개성, 유행성 추구성향이 강하고, 유행선도자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추구성향이 강한 반면, 유행추종자와 유행지체자는 활동성 추구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은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같은 사용상황이라도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sup>57)</sup>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의복태도는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 관리성 등과 같은 추구혜택 요인과, 개성, 동조성과 같은 의복동조성향 요인, 그리고 과시성, 심리적 의존성, 유행성과 같은 유

<표 1> 의복태도 요인 및 하위요인

의복태도 요인	하위요인	연구자
유행선도력	개성, 심미성, 과시성	신원혜(1993), Anspach(1961)
	유행성, 관심, 상징성, 유행인지도	권순기(1990)
	심리적 의존성, 성적매력, 과시성	김용숙(2003), 김용숙 & 유국련(2002)
	혁신성, 의사선도성	Roger(1983), 김정희(1988), 고애란 & 남미우(1998), 배정주(1989), Sproles(1981)
동조성	규범적 동조	Willis(1989), Eysenck외(1972), Sololmon
	규범적사회적동조, 정보적사회적동조	Deutsch & Geard(1955), 박혜선·이은영(1991), 정미실(1991), 김재숙외(2001)
	동조, 비동조, 반동조, 개성, 창의적, 독립적	Allport(1934), Walker & Heyns(1962), Asch(1956), Jahoda(1959)
	규범적, 동일시적	박혜선, 이은영(1991)
	정보적 동조	Ettinger외(1971), Coleman외(1958), Park & Lessing(1977)
추구혜택	상징성,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	김미영, 이은영(1991)
	유행성, 브랜드가치, 자기표현, 경제성, 품질	홍의숙, 고애란(1996)
	실용경제성, 상징성, 과시성, 개성, 심미성, 유행성, 경제성	이정화(1997)

행 선도력 변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 중 유행선도력이란 유행의 채택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새 스타일을 수용하는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혁신성과 의사선도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조성이란 실제 또는 가상의 인물이나 집단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행동 또는 신념이 변화하는 정도이며, 동조성은 다시 규범적, 정보적, 동일시적 동조로 정리할 수 있다. 의복추구혜택이란 특정제품의 속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요구나 욕구로서 소비자들이 제품사용과 관련하여 원하는 주관적 보상이나 기대하는 긍정적 결과를 의미하며, 경제성, 심미성, 실용성, 편리성, 유행성, 상징성 등과 같은 추구혜택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의 의복태도 요인 및 하위요인 <표 1>에 근거하여, 유행선도력은 혁신성과 의사선도력으로, 동조성은 규범적 동조, 동일시적 동조, 비동조(독립, 개성)로, 그리고 의복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으로 분류하여 중국 유학

생의 의복태도 관련 설문을 작성할 것이다.

###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문제

##### 1) 중국인 유학생의 유행선도력을 알아본다.

- (1) 성별에 따른 유행선도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 (2)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유행선도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 (3)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유행선도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 2) 중국인 유학생의 의복동조성을 알아본다.

- (1) 성별에 따른 의복동조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 (2)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복동조성에 차

이가 있는 지를 비교한다

(3)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의복동조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한다.

### 3) 중국인 유학생의 의복추구혜택을 알아본다

(1) 성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한다

(2)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한다

(3)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의복추구혜택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한다.

##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의복태도에 관한 문항은 김경희와 정성지(2000), 박혜선(1995)<sup>58</sup>, 박혜선과 김화순(1998)<sup>59</sup> 연구에 사용된 변인 중에서 유행선도력, 의복동조성, 의복추구혜택 관련 문항을 선별하였다. 하위척도별 문항수는 유행 선도력에 관한 문항 9개, 동조성에 관한 문항 8개,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문항 9개, 그리고 인구통계 및 일반적인 문항 12개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렇게 작성된 설문지는 중국인 한국대학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등간척도와 명목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등간척도는 점수가 높을 수록 찬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이들 요인의 내적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계산하였다. 인구통계 변인에 따른 의복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고, 추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 대상은 서울소재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으로 연구자가 편의표집에 의해 선별하여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83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부적절한 설문지는 제거하고, 최종 26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2008년 10월 30

일부터 11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 IV. 분석 결과

### 1. 중국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에 응답한 중국인 유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119(45%), 여학생이 148(55%)명 이었다. 그들의 출신 민족은 한족(81%), 조선족(10%), 후이족과 몽고족(각 2%), 위구르족(0.4%)으로 한국 체류 중국인 50만명 중 약66%인 33만 명이 '조선족'인데 반해, 유학생은 한족인 순수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1-2년(53%), 2-3년(25%), 3년이상(4%), 1년이하(18%)로 대부분이 3년 이내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친구와 함께(60%) 동거하고 있었으나, 혼자(29%)서도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의 50%가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유학을 왔으며, 중국에서의 전공은 경제학(38%)과 문학(18%), 이공학(16%)을 전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모님의 절반 정도(부: 45%, 모: 5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30%이상(부: 37%, 모: 31%)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영업(부: 30%, 모: 21%), 공직/교직(부: 23%, 모: 16%), 회사(부: 21%, 모: 24%) 등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중상층(중상: 76%) 가정이었다. 대부분 유학생들이 자비(81%)로 유학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한 달 용돈은 50만원이상(3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표 2> 성별, 사회경제수준, 거주기간 특성

(%)

성별	남	119(45)
	여	148(55)
사회 경제 수준	상	60(23)
	중	204(76)
	하	2(1)
거주 기간	1년 이하	47(18)
	1-2년 이하	139(53)
	2-3년 이하	65(25)
	3년 이상	13(4)

<표 3> 기타 일반적 특성

(%)

종족	한족	215(81)	중국 대학 유경험	133 (50)	자국 전공	경제학	51(38)	부 학력	대졸	98(37)	부 직업	회사원	65(24)			
	조선족	27(10)				문학	24(18)		고졸	119(45)		자영업	55(21)			
동거인	기타	25(9)				이공학	21(16)		중졸	28(11)		공무원/교직원	42(16)			
	친구	160(60)				기타	37(28)		기타	22(7)		기타	105(39)			
	혼자	77(29)				의복 구매 장소	백화점		61(23)	모 학력		대졸	82(31)	모 직업	자영업	80(30)
기타	30(11)	쇼핑몰	61(23)	고졸	134(50)			공무원/교직원			60(23)					
50만원 이상	85(32)															
40-50만원	80(30)	인터넷	37(14)	기타	21(8)			기타			70(26)					
40만원 이하	72(27)															
한 달 용돈	기타	30(11)	기타	24(4)												

으로 40-50만원(30%), 40만원이하(27%)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유학생들의 의복구매 장소는 백화점/쇼핑몰(각 23%), 로드샵(21%), 인터넷 쇼핑(14%), 재래시장(10%), 자국조달(5%) 순으로 나타나, 중국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중국유학생의 의복태도 요인분석

### 1) 유행선도력 변수의 요인분석

중국유학생의 의복태도 중 유행선도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법으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4>에서와 같이 두 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요인의 적재값은 모두 .50 이상으로 매우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이들 두 요인의 설명력은 61.19%였으며, 신뢰도는 각각 .84와 .82로 충분하였다.

요인 1은 새 유행스타일을 중요시 하고 타인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으며, 최신유행스타일에 관한 흥미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이를 '혁신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

력은 32.01%였다. 요인 2는 친구들에게 새 유행스타일을 제시하고 그들도 나에게 묻는다, 친구의 의복구매결정에 도움을 준다,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의사선도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력은 29.18%였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는 Rogers(1962), 김정희(1988), 고애란과 남미우(1998)의 유행선도력 변수의 요인과 일치하고 있었다.

### 2) 동조 변수의 요인분석

중국인 유학생의 의복태도 중 동조성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세 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요인의 적재값은 모두 .50 이상으로 매우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이들 세 요인의 설명력은 68.25%였고, 신뢰도는 .64와 .61 그리고 .59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남과 다른 옷을 입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주관대로 옷을 입고 싶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이를 '비동조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력은 25.77%였다. 요인 2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과 같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낯선 그룹에

<표 4> 의복태도 요인분석

의복태도 변수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	누적분산 (%)	Cronbach's $\alpha$	
유행 선도력	요인 1 혁신성	새 유행 스타일 착용은 나에게 중요하다	.74	2.88	32.01	32.01	.84
		타인의 유행모습변화를 잘 알아차린다	.73				
		내가 입은 옷이 나중에 유행되기도 한다	.72				
		타인과 비슷한 옷을 입지 않는다	.61				
		최신유행경향을 따르는데 흥미가 있다	.56				
	요인 2 의사선도성	친구들에게 새 유행을 이끌 옷을 제시하고 싶다	.87	2.63	29.18	61.19	.82
		내게 유행하는 스타일을 묻는다	.78				
		친구의 의복구매결정에 도움을 준다	.65				
		그룹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한다	.58				
동조성	요인 1 비동조성	남과 다른 나의 성격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옷을 좋아한다	.83	1.80	25.77	25.77	.64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74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주관대로 옷을 입는다	.70				
	요인 2 동일시성	새 옷을 살 때 친구들과 같은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	.77	1.66	23.78	49.54	.61
		낯선 그룹에 갈 때는 멤버들과 같은 옷을 입고 싶다	.76				
요인 3 규범성	어떤 모임에서 내 옷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어색하게 느낀다	.82	1.31	18.71	68.25	.59	
	새 옷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봐 염려된다	.64					
추구혜택	요인 1 실용성	입어서 편한것이 의복에서 매우 중요하다	.72	2.04	24.12	24.12	.67
		색,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도 손질하기 힘들면 사지 않는다	.70				
		반복 착용 가능하도록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의 옷을 산다	.70				
		집에서 세탁 가능한 옷을 사려 한다	.69				
	요인 2 경제성	옷을 구입할 때 가격이 싸서 할인점이나 도매점을 주로 간다	.87	1.65	18.59	42.70	.70
		블라우스, 셔츠 등을 살 때 여러 곳을 다녀서 가격을 비교 한 후 산다	.85				
	요인 3 심미성	옷이 나를 아름답게 한다면 손질이 힘들어도 개의치 않는다	.87	1.57	17.90	60.59	.70
		옷을 살 때 디자인, 색이 마음에 들면 어느정도 비싸더라도 그 자리에서 산다	.86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질 때는 멤버들과 같은 옷을 입고 싶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동일시성’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력은 23.78%였다. 요인 3은 어떤 모임에서 내 옷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어색하게 느끼며, 새 옷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봐 염려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를 ‘규범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력은 18.71%였다. 이러한 결과는 박혜선, 이은영(1991)의 연구에서 규범적 의복동조, 동일시적 의복동조로 분류한 것과 유사하나,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요인외에 비동조성 요인이 포함되었다.

### 3) 추구혜택 변수의 요인분석

중국인 유학생의 의복태도 중 추구혜택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세 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요인의 적재값은 모두 .69 이상으로 매우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이들 세 요인의 설명력은 60.59%였고, 신뢰도는 .67과 .70 그리고 .70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입어서 편한 것, 손질용이, 반복착용 가능하도록 무난한 색, 집에서 세탁가능을 중요시 여기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이를 ‘실용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력은 24.12%였다. 요인 2는 가격을 고려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경제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력은 18.59%였다. 요인 3은 옷이 나를 아름답게 한다면 손질이 힘들어도 개의치 않는다, 디자인과 색이 마음에 들면 비싸도 그 자리에서 즉시 산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를 ‘심미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설명력은 17.90%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영, 이은영(1991)의 연구와 홍희숙, 고애란(1996) 그리고 이정화(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추구혜택요인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 3. 유행선도관련 의복태도

### 1) 성별에 따른 유행선도력 차이비교

유행선도력 하위요인인 혁신성과 의사선도성에 있어서 남녀학생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혁신성요인에서 남녀간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국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혁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여학생이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을 남학생에 비해 먼저 수용하며, 타인의 의복변화를 남학생 보다 잘 알아차릴 뿐 아니라 타인과 차별적인 의상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 2)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유행선도력 차이비교

사회경제수준에 따라 유행선도 하위요인인 혁신성과 의사선도성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후 duncan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의사선도성 요인에서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신의 사회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의 의사선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 집단이 친구들의 의복착용 및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민자·김정호(1983)의 서울시내 여대생 대상 패션리더십 연구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수준은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대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급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집단의 사회경제수준은 의견선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중국학생들이 한국의 서울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있지만 진보적인 서울의 여대생보다 전통지향적 가치관을 가

<표 5> 성별에 따른 유행선도력

요인	남		여		t 값	p-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혁신성	-.19	.95	.15	1.02	-2.78*	.006
의사선도성	-.04	1.02	.02	1.00	-.49	.625

p\* < .05

<표 6>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유행선도력의 하위요인인 의사선도성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사회경제수준	N	유의수준 = .05에 대한 부집단		F	p-value
		1	2		
하	2	-1.2326170 <sup>b</sup>		3.029*	.050
중	201		-.0372624 <sup>a</sup>		
상	59		.2084956 <sup>a</sup>		
유의확률			1.000		

p\* < .05

a > b: Duncan Test

지고 있는 대구 여학생들의 의복태도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비록 현대 중국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통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 3) 거주기간에 따른 유행선도력 차이비교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른 유행선도력의 혁신성과 의사선도성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1년이 안된 학생이나 3년이 넘은 학생이나 유행선도력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거주기간의 차이가 충분히 길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을 정리하면, 새 의복스타일을 먼저 수용하는 집단은 여학생 집단이며, 이러한 새 유행스타일을 친구들에게 선도하고 친구들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선도적 행동은 사회경제수준을 높게 인지하는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4. 동조성관련 의복태도

### 1) 성별에 따른 동조성 차이비교

중국유학생의 성별에 따른 동조성 하위 요인인 비동조성, 동일시성, 규범성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녀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자

는 동일시 요인이, 여자는 규범성 요인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 2)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동조성 차이비교

자신이 느끼는 사회경제수준에 따라서 동조성 하위요인인 비동조성, 동일시성, 규범성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일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규범성 요인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 3) 거주기간에 따른 동조성 차이비교

중국유학생의 거주기간에 따른 동조성 하위 요인인 비동조성, 동일시성, 규범성간의 차이를 보기위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규범적요인에서만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거주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유학생들은 동조성의 규범적 요인이 낮게 나타난 반면, 1년 이상 2년 이하 거주한 유학생들에게서 동조성의 규범적 요인이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학생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이전에는 한국학생들의 의복행동으로부터 규범적 영향을 받지 않다가, 한국생활을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하는 1년에서 2년 차에 규범적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후 부터는 점차 영향을 덜 받는데 이것은 2년 이후에는 한국패션에 동화되기 때문이 아닌 가 추측된다.

<표 7> 거주기간에 따른 동조성의 하위요인인 규범성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거주기간 (개월)	N	유의수준 = .05에 대한 부집단		F	p-value
		1	2		
1-12	45	-.3066381 <sup>b</sup>		4.948*	.002
37-	13	-.2633284 <sup>ab</sup>	-.2633284 <sup>ab</sup>		
25-36	62	-.2118355 <sup>ab</sup>	-.2118355 <sup>ab</sup>		
13-24	137		.2137045 <sup>a</sup>		
유의확률		.715	.063		

p\* < .05

a > b: Duncan Test

이상을 재정리하면, 동조성의 하위요인은 비동조성, 동일시성, 규범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하위요인 간에는 성별, 사회경제수준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남학생과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동일시성이, 그리고 여학생과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 그리고 한국에 거주한 지 1-2년된 학생 집단에서 규범적 동조현상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적절한 판매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요소인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은 실용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심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연변조선족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류제품 평가기준을 연구한 김순심(2003)<sup>60</sup>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의류제품평가기준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 5. 추구혜택관련 의복태도

#### 1) 성별에 따른 추구혜택 차이비교

중국유학생의 성별에 따라 추구혜택의 하위

#### 2)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추구혜택 차이비교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추구혜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8> 에서와 같이 실용성과 경제성 요인에서 유의확률 .015와 .016 수준에서

<표 8>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추구혜택 중 실용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사회경제수준	N	유의수준 = .05에 대한 부집단		F	p-value
			1	2		
실용성	하	2	-1.8431579 <sup>b</sup>		4.25*	.015
	중	200		-.0021079 <sup>a</sup>		
	상	59		.1362116 <sup>a</sup>		
	유의확률		1.000	.807		
경제성	상	59		-.3181141 <sup>c</sup>	4.22*	.016
	중	200		.1018476 <sup>b</sup>		
	하	2		.2248771 <sup>a</sup>		
	유의확률			.381		

p\* < .05

a > b > c: Duncan Test

<표 9> 거주기간에 따른 추구혜택 중 경제성 및 심미성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거주기간 (개월)	N	유의수준 = .05에 대한 부집단		F	p-value
			1	2		
경제성	37-	13	-.4532785 <sup>b</sup>		3.221*	.023
	1-12	46	-.1605549 <sup>ab</sup>	-.1605549 <sup>ab</sup>		
	13-24	136	-.0239738 <sup>ab</sup>	-.0239738 <sup>ab</sup>		
	25-36	64		.2944012 <sup>a</sup>		
	유의확률		.098	.079		
심미성	25-36	64	-.2177460 <sup>b</sup>		2.662*	.049
	1-12	46	-.0677969 <sup>b</sup>			
	13-24	136	.0956528 <sup>ab</sup>	.0956528 <sup>ab</sup>		
	37-	13		.5091986 <sup>a</sup>		
	유의확률		.229	.092		

p\* < .05

a > b: Duncan Test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수준이 ‘상’ 또는 ‘중’이라고 느끼는 집단이 ‘하’라고 느끼는 집단보다 실용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사회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성요인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미성요인은 사회경제수준에 상관없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손희정·김효숙(2000)와 유국련·김용숙(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3) 거주기간에 따른 추구혜택 차이비교

중국유학생의 한국 거주기간별 의복태도의 추구혜택 하위요인인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한 결과, <표 9> 에서와 같이 경제성, 심미성 요인에서만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년 이상 거주 유학생들은 경제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2-3년 거주 유학생들이 경제성 혜택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성 추구는 3년차에 가장 피크를 이루다가 3년 이상이 되면 가장 약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미성에 대해서는 2-3년차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가 3년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중

국유학생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 2-3년차에는 의복의 아름다움보다는 가격을 고려해서 의복을 구매할 것이며, 3년 이후부터는 가격보다 심미성 즉 디자인에 보다 관심을 두고 구매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대상 니치마켓에서는 거주기간을 고려한 판매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들이 인지하는 의복태도를 유행선도력, 동조성, 추구혜택으로 세분화하여 성별, 사회경제수준 그리고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중국 유학생의 대부분은 한쪽이었으며,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유학을 온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중산층의 자녀로써 자비로 유학을 하고 있었으며, 한 달 용돈은 5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3년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의복 쇼핑은 주로 한국내 백화점이나 쇼핑몰과 같이 윈스톱 쇼핑이 가능

한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중국유학생의 의복 유행선도성은 혁신성과 의사선도성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혁신성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의사선도성은 사회경제적 상위층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 3) 중국유학생의 의복 동조성은 비동조, 동일시, 규범적 동조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들 하위요인 간에는 성별, 사회경제수준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에 거주한 지 1-2년된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에게서 규범적 동조현상이 높게 나타났다.

- 4) 중국 유학생들이 추구하는 혜택 요인은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 수준이 중상이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실용성을 중요시 여겼으며,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경제수준과 심미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기간은 경제성요인과 심미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 2-3년차에는 의복의 아름다움보다는 가격을 고려해서 의복을 구매할 것이며, 3년 이후부터는 가격보다 심미성 즉 디자인에 보다 관심을 두고 구매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중국유학생의 패션오피니언 리더층은 한국에 3년 정도 거주한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여대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류계층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뉴 마켓 개발이 요구되며, 한국거주 2년 이내 학생에게는 한국패션의 규범을 소개하고, 3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심미성을 강조하는 판매 전략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국인의 유행선도력과 동조성이 의복태도의 타 요인보다 낮은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의 의복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과, 의복태도의 요인인 유행선도성, 의복

동조성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혜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국내 거주 중국인들 즉, 후기 채택자들의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유행의사 선도자를 규명하고 중국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에 따른 중국유학생의 의복태도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는 내용이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보강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 유학 온 중국학생 만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연구하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국 대학생 모두에게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성민 (2008. 5. 2). 한국내 중국인 50만명... 유학생 2만7000. 자료검색일: 2009. 2. 28.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yosuchi/> 470
- 2) 장수경, 옥금희 (2007). 중국 대학생의 의복 쇼핑 성향에 따른 점포평가기준, 의복평가기준 및 캐주얼의류 구매행동. *복식문화연구* 15(1), p.99.
- 3) 심종성 (1996). 패션의류와 소비자 행동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강원대 경영과학연구회*, pp.1-20.
- 4) 유혜경 (1998). 중국 의류소비자 특성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2(2), pp.233-240.
- 5) 유국련, 김용숙 (2002). 중국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태도 및 구매행동. *복식* 52(5), pp.15-30.
- 6) 심복실, 유혜경 (2002).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8), pp.1141-1152.
- 7) 김순심 (2003).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생의 의류제품평가 기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3), pp.111-123.
- 8) 손희순, 임순, 박송애, 송경숙 (2003). 중국

- 여성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행동과 구매시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복식* 53(6), pp.87-99.
- 9) 왕해연, 김용숙 (2005). 중국 신세대 여성들의 감각추구형향에 따른 의복탐색행동. *복식* 55(3), pp.81-93.
- 10) 손희순, 임순, 위혜정 (2003). 중국 성인여성의 한국산 패션제품 인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7(1), pp.101-115.
- 11) 김용숙, 유국련, 왕해연 (2006). 중국 중연 여성들의 소비성향에 따른 의복태도와 구매동기. *복식* 56(2), pp.45-55.
- 12) 유국련, 김용숙 (2002). Op. cit., pp.15-30.
- 13) Ibid., pp.15-30.
- 14) 김용숙 (2003).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물질주의성향과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53(8), pp.11-20.
- 15) 이옥희 (2002). 중국 남자 대학생들의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1), p.96.
- 16) 김순심 (2003). 중국연변지역 조선족 대학생의 의류제품평가기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3), pp.111-123.
- 17) 손희정, 김효숙 (2000). 중국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4(2), pp.85-93.
- 18) 김지영 (2002). The Analysis of China Apparel Industry: 중국의류 산업개요. 삼성패션연구소. 자료검색일 2004.1.2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co.kr>
- 19)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12), pp.303-316.
- 20) 유국련, 김용숙 (2002). Op. cit., pp.15-30.
- 21) Rogers, E. M. (1983). Diffusion of Innovations (3rd ed.). New York: The Free Press.
- 22) 김정희 (1988). 유행선도력에 따른 의복구매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64.
- 23) Rogers, E.M. & Shoemaker, F.F. (1971). Communication of Innovation(2nd ed.). New York: The Free Press. 재인용: 최선영, 이은영 (1987). 유행선도자의 특성연구-유행선도력, 사회성 성격, 의복동조성, 유행정보원사용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11(3), pp.15-24.
- 24) Pasnak, M. F., (1968), *Fashion innovations compared with non-innovations on clothing attitudes, self-actualization and tolerance of ambiguity*, Doctori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 Microfilms, No 68-15, p.140. 재인용: 최선영, 이은영(1987). Ibid., pp. 15-24.
- 25) 배정주 (1989). 유행선도력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정삼호, 문선정 (2001). 연예인의 유행스타일 선호도에 따른 유행선도력 및 의복태도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4, pp.163-186.
- 26) 권순기 (1990). 남성 유행혁신자의 의복행동과 라이프스타일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0-57.
- 27) Rogers, E.M. & Shoemaker, F.F.(1971). *Communication of Innovation(2nd ed.)*. New York: The Free Press. 재인용: 최선영, 이은영 (1987). Op. cit., pp.15-24.
- 28) Sproles, G.B. (1981). Analysis Fashion Cycles-Principles and Perspectives. *Journal of Marketing* 45, pp.116-124.
- 29) 김정희 (1988). Op. cit., pp.20-64.
- 30) Anspach, k. (1961). Clothing Selection the Mobility Concept. *Journal of Home Economics* 53(3), pp.428-430.
- 31) 신원혜 (1993). 유행의견선도력에 따른 의복 선택행동과 유행정보원 사용의 차이.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0-53.
- 32) Lindzey, G. and Aronson, E (Editing, 1985).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2, N.Y.: Random House. 재인용: 김재숙, 송경자 고순화, 이경희(2001), 규범적 및 정보적 영향에 의한 여대생의 의복 동조

- 성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4, pp.22-33.
- 33) Aronson, E. (1981). *현대사회심리학개설*. 유진 번역. 서울: 탐구당, p.28.
- 34) Eysenck, H. J., Wurzburg, W. a. and Berne, R. M. (1972). *Encyclopedia of Qsychology*, 1, Search Press: London. 재인용: 김재숙, 이소라, 김미선, 이나은 (2007).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 동조성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20(1), pp.50-61.
- 35) Deutsch, M. and Gerard, H. B. (1955).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pp.629-636.
- 36) Park C. W., & Lessing, V. P.(1977). Students and housewives: Difference in susceptibility to reference group influ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pp.102-110.
- 37) 박혜선, 이은영 (1994). 의복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과 준거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4), pp.490-500.
- 38) Taylor, L. C. (1967). *Conformity in dress and selected color, design, texture and personality variable*. Unpublishec master thesis, Utah State University. 재인용: 이선경, 정준교 (2003). 창의성, 개성, 동조성에 따른 고교생의 의복행동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9), pp.1-16.
- 39) 박혜선 (1995). 의복태도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6). pp.968-983.
- 40) Ettinger, R. F., Marino, C. J., Endler, N. S., Geller, S. H. and Natzink, T. (1971). Effects of agreement and correctness on relative competence and conform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pp.204-212.
- 41) Coleman, J. F., Blake, R. R. and Mouton, J. S. (1958). Task difficulty and conformity pressur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7, pp.120-122.
- 42) Jenkins, M. C. and Kickey, L. E. (1976, 3). Consumer Types Based on Evaluative Criteria Underlying Clothing Deci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pp. 150-162.
- 43) Katz, E. & Lazarsfeld, P. F. (1955). *Personal Influence*. The Free Press of Glencoe, pp.247-270.
- 44) 김민자, 김정호 (1983).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제1보: 서울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1), pp.11-21.
- 45) Allport, F. H. (1934). The J-curve hypothesis of conforming behavio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pp.141-182.
- 46) Walker, E. L. & Heyns, R. W.(1962). *An anatomy of conformit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재인용: 이선경, 정준교 (2003). Op. cit., pp.1-16.
- 47) Asch, S. 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70(9), pp.1-70.
- 48) Jahoda, M. (1959). Conformity and independence: A psychological analysid. *Human Relations* 12, pp.99-119.
- 49) 이선경, 정준교 (2003). Op. cit., pp.1-16.
- 50) Peter, J.P. & Olson, J.C. (1987). *Consumer Behavior,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s*. Irwin.재인용: 이승희, 임숙자 (1998). 유행 선도력에 따른 소비자의 추구혜택 및 의복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pp.942-951.
- 51) 박혜선 (1995). 의복태도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6). pp.968-983.
- 52) 이승희, 임숙자 (1998). Op. cit., pp.942-951.
- 53) 김미영, 이은영 (1991).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특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pp. 321-334.
- 54) 홍희숙과 고애란 (1996). 상황과 소비자 특성의 추구혜택과 선호브랜드 유형에 대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5), 738-752.
- 55) 이정화 (1997). 소비자의 추구혜택에 따른

- 의복구매행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0-68..
- 56) 이승희, 임숙자 (1998). Op. cit., pp.942-951.
- 57) Dickson, P.R. (1982). Person-Situation: Segmentation's Missing Link. *Journal of Marketing* 46(fall), pp.56-64.
- 58) 박혜선 (1995). Op. cit., pp.968-983.
- 59) 박혜선, 김화순 (1998). 의복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2), pp.279-289.
- 60) 김순심 (2003). Op. cit., pp.111-123.